



중앙회 회장단 '타이베이국제베이커리쇼 2006' 방문

# 물꼬 튼 한국-대만 제과교류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한 우호 사절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5일까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열린 '타이베이국제베이커리쇼 2006'을 방문해 지난 20년간 단절돼왔던 한국-대만 제과교류에 앞장섰다. 양국 제과업계 대표는 지난해 대만제과협회의 Siba 2005 참관에 이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 간의 기술교류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글\_김미선 기자·사진\_(사)대한제과협회

지난 3월 2일부터 5일까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서 대만제과협회 주최로 '타이베이국제 베이커리쇼 2006(Taipei International Bakery Show 2006)'이 열렸다.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김종익 고문, 박찬희·임영진·주재근 부회장으로 구성된 한국 우호 사절단은 대만제과협회로부터 해외귀빈자격으로 초청받아 4박 5일 간의 일정으로 전시장 및 대만 제과업계를 공식 순방했다.

회장단의 이번 대만 방문은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이 2번째로 지난해 10월 제12회 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Siba 2005)에 대만제과협회

료본창(廖本蒼) 이사장을 비롯한 대만 제과업계 관계자들이 방문한 데 따른 답방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타이베이국제베이커리쇼는 1999년에 1회 행사가 열린 이래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대만·홍콩·싱가포르를 아우르는 중화권 최고의 베이커리 관련 행사다.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전시회의 개막을 알리는 테이크퍼팅 행사에 초청받아 이번 전시회를 찾은 세계 각국의 베이커리업계 거장들과 나란히 한자리에 섰다.

지난해 Siba 2005를 방문해 (사)대한제과협회에 친선교류 기념패를 전달한 바 있는 대만제

과협회 료본창 이사장은 한국 대표단을 맞아 "지난해 참관한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를 통해 한국 베이커리업계의 기술 발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협회 간의 활발한 기술 및 정보교류를 통해 우호를 쌓아나가자"는 바람을 전했다.

이에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Siba 2005에 100여 명의 참관단을 꾸려 직접 방문하는 등 양국 제과기술 교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료본창 이사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번 전시회 방문을 통해 그동안 가려져있던 대만 제과업계의 앞선 기술수준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



1,3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 320여 개 제과 관련 재료·기계업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2 김영모 회장은 세계 각국의 베이커리업계 거장들과 함께 전시회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커팅 행사에 초청받았다. 4 다함께 높이 든 잔속에는 '제과'라는 공통된 언어로 하나가 된 한국과 대만 제과인의 깊은 우정이 담겨져 있다. 5,8 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베이커리월드컵 아시아지역예선이 개최되는 등 제과·제빵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데몬스트레이션이 선보였다. 6 (사)대한제과협회 회장단과 대만제과협회 임원진이 나란히 한 자리에 섰다. 7 행사 둘째 날 열린 갈라디너에 참석한 (사)대한제과협회 우호 사절단. 9 우호 사절단은 제과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친분을 쌓아가는 데 바쁜 일정을 보냈다.

가 돼 감회가 무척 새롭다"고 타이베이국제베이커리쇼 방문의 소감을 밝혔다.

**양국 협회대표 공동 발전 위해 뜻 모아**

전시회 이틀째 밤 타이베이 시내중심가에서 열린 갈라디너는 대만의 국내의 제과업계 관계자들이 타이베이국제베이커리쇼 2006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화합의 장이었다. 이날 갈라디너에서는 김영모 회장을 비롯한 (사)대한제과협회 우호 사절단이 이번 전시회에 초대받은 세계 각국의 여러 제과인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되는 등 대만제과업계의 관심이 한국 제과업계에서 방문한 '귀한 손님'에 온통 집중됐다.

이날 김영모 회장은 "20년 동안 단절된 대한제과협회와 대만제과협회가 지난 Siba 2005를 계기로 다시 우호를 쌓게 돼 한국제과업계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 협회가 '제과인'이라는 공동체 의식 아래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연설문을 낭독해 갈라디

너 참석자들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았다.

한편 (사)대한제과협회 우호 사절단은 본격적인 전시회 참관에 앞서 대만제과협회 주선으로 타이베이 시내 유명 제과점 방문에 나서 대만 제과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 제과업계로의 벤치마킹 요소를 모색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번 회장단의 대만 방문 성과는 오는 3월 24일 중앙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사)대한제과협회 긴급 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 간 수교 단절 등의 이유로 지난 20년 동안 뚜렷한 돌파구 없이 표류하던 한국과 대만, 양국 협회간의 교류는 지난해 8월 (사)대한제과협회 Siba 2005 홍보사절단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다시 물꼬를 트게 됐고, 월간 <베이커리>와 대만의 <타이완푸드뉴스>간의 기사 교류를 추진하는 등 현재 지속적인 활성화 일로에서 있다.

앞으로 (사)대한제과협회와 대만제과협회는 제과·제빵 관련 재료와 기계로 대변되는 양국의 산업체 교류 활성화에도 함께 힘을 모어나갈 계획이다. 한국과 대만, 이제 양국은 '제과'라는 공통의 언어로 하나를 이뤘다. ☺

**타이베이국제베이커리쇼 2006**  
 Taipei International Bakery Show 2006

타이베이국제베이커리쇼는 제과와 관련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전시회 가운데 하나다. 올해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 타이베이 국제무역센터에서 개최돼 대만을 비롯한 전 세계 320여 개 제과 관련 재료·기계업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베이커리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이 개최되는 등 제과·제빵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데몬스트레이션이 선보였다.

